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연 희

탁 진 국†

광운대학교

본 연구는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코칭 프로그램이 학교 적응과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J구에 소재한 S중학교에서 관리하는 2학년에 재학 중인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학생 8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여 진로코칭프로그램을 주 1회 2시간씩 총 6회기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같은 관리 대상 학생 8명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사전, 사후, 추후 시점에 학교적응도 검사, 직업미결정요인탐색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사는 코칭이 끝난 4주 후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진로코칭 프로그램이 진로 미결정 요인 가운데 직업정보부족과 외적장애 요인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프로그램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진로미결정요인과 학교적응도 변인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진로코칭프로그램, 학교적응, 진로결정수준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 및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탁진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tak@kw.ac.kr, 02-940-5424

흔히들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한다. 질풍노도란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이라는 뜻으로 그 뜻에 맞게 청소년들은 반항하고, 일탈을 서슴지 않으며, 감정적인 동요가 심하다. 산업이 발달하여 고도화되어 갈수록 교육과 훈련기간이 확대되고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연령층이 높아짐으로써, 청소년기는 점점 더 연장되고, 청소년 집단은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 문제 또한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교육적 특성상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이해를 통한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탁진국, 2017)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은 불안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심리적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정적,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한국의 교육현실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져 우울과 상대적 박탈감의 정서를 겪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또래집단과 어울리다가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행동으로는 가출,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학교 폭력, 성적 조적이 미성숙으로 인한 중동, 기타 범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문제행동에 쉽게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의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교육부 학업중단 현황조사(2014)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업 중단률은 전체 재적 학생 수 대비 1.06%, 1.01%, 0.93%로 나타났다. 그동안 학업 중단 숙려제 시행 등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학업 중단률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지만,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과 공식적 통계에 추산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령기 아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약 28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윤철경, 김신영, 유성렬, 임지연, 2013).

학업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학교 부적응이다. 통계에 의하면 학교 급별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 수는 초등학교 2,777명, 중학교 5,476명, 고등학교는 20,249명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중단 학생의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정규교육 외 진로선택(대안교육)이 1,507명(전체 2,7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 부적응이 각각 2,877명(전체 5,476명), 9,781명(전체 20,249명)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통계연보(2014)에 의하면 전체 학생 중 45.8%가 학교부적응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학교부적응은 학생들의 일탈행동만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학교폭력, 등교거부, 학습부진 집단따돌림, 비행, 교사의 권위에 대한 저항을 비롯하여 성비행, 자살관념, 우울감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남영옥, 2005; 백진숙, 2012) 이러한 학교부적응은 단순히 학교차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후일 성인이 되어서도 일탈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으며(박영신, 김의철, 2003) 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학교 부적응 문제가 학업중단의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간 학교부적응 문제를 주제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는 학교부적응의 유형과 요인간의 상관관계

에 대한 연구(김진주, 권현용, 2015; 오정아, 정윤태, 2015; 오정아, 남부현, 2014), 둘째로는 학교부적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김은정, 2005; 김영희, 2010; 조성심, 최승희, 2011), 셋째로 학교부적응에 이르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연구(최종혁 외, 2011; 이태영 외, 2011)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학교부적응의 원인을 밝히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여 학교부적응 예방과 부적응 학생 적응력 향상에 방향성 제시와 지지기반 마련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부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병리적 관점에서 취약성을 지닌 개인은 곧 문제로 이어진다는 단선 인과론에 집착하고 있어(하민정, 2015), 학교부적응을 정신병, 신경증, 범죄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결과로 보고 있는 견해가 많다(한성희 2000; 변귀연 2004).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학교부적응을 정의내리고 해석하여 개인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연순, 엄인숙 2013)나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충동성의 억제(Kendall & Braswell, 1993), 분노표출, 자기조절능력의 긍정적 변화(Kendall & Zupan, 1981) 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정신증적 치료에 관대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미국 사회학자 Howard S. Becke의 '낙인 이론'에 근거한 스티그마 효과(Dean Manders 1975)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프로그램들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 배치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체험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진로, 직업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또한, 진로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김보현, 조경덕, 2006; 김영희, 2011; 김유진, 2015)에서 진로에 대한 인식의 고양이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이에 학교부적응을 병리적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관점이 아닌 직업적, 개인적인 성과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코칭으로 개인변인인 흥미, 적성, 가치관, 강점을 통합하여 구성한 진로코칭프로그램(탁진국, 2017)을 응용한 그룹코칭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진로 결정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켜 주어 이를 통해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계획되었다. 보편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코칭프로그램에 성질이 비슷한 또래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그룹코칭의 요소를 추가하여 보다 나은 효과를 꾀하였다. 그룹코칭의 요소는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아로플러스' 진로탐색프로그램의 활동 중 일부를 가져와서 활용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사후개입에 비해 훨씬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업을 중단하기 전 개입을 통해서 학교적응을 조력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원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학업중단의 과정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강석영 외, 2011; 손병덕 외, 2017; 정연순 외, 2008; 정민선 외, 2011).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학업중단의 과정을 시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들 각 단계들은 서로 강화하고 촉진하는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는 각종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범죄로 인한 사회비용과 복지비용의 증가는 물론 가정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에는 학교를 그만 둔지 1년이 지난 이후 비행화 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사회적 낙인과 편견,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게임중독과 대인관계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또한, 이후에 학업에 복귀하더라도 재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할 뿐 아니라 학업 지속 성공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 개입을 통해서 학교적응을 도와주고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강석영 외, 2009). 조기개입과 개입프로그램 개발은 학업중단 사후개입에 비해 훨씬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음 단계로의 위험요소이동과 위험 수준의 증가를 방지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에 재학 중이나 실질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으며 제도적으로

학교중퇴로 이어져 탈 학교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진로 결정 수준

진로결정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시간에 걸쳐 진로발달로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그러한 결정을 의미한다(강선영, 1996; 한복남, 2004). 이에 따르면, 진로결정은 정신적 측면에서 진로결정 수준으로 나타나며, 행동적 측면에서 진로준비행동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탐색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적용이 진로결정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이정애, 최용용, 2008). 이는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 제공이 진로결정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진로결정에서의 개인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확인하여 진로선택에 고려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진로체제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곽대섭, 2004; 오은주, 2008, 김혜영, 2011). 이처럼 진로 결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진로상담, 진로지도, 진로교육에 관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자아개념, 지능, 내외적인 통제적 신념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

이 개인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코칭은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를 직접 가르치기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Tim Theeboom 2013)라는 코칭의 정의처럼 청소년 시기의 진로 결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진로코칭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양한 진로 미결정 요인을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더욱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진로 미결정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에게 진로코칭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춰주고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적응

학교적응은 고정된 구성개념이 아니라,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또래나 교사 등의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또한 성공적인 학교 적응은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정서적 안정, 자기 결정감, 사회적 연결감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또래집단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등교거부, 폭력이나 절도 등의 비행, 가출 또는 무단 장기 결석, 학습부진, 음주, 흡연 등과 같은 교칙 위

반, 주의산만, 신체적 공격행동, 위축 행동, 우울증, 학습 분위기 저해, 휴학, 자살 등의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학교 적응 문제와 진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주·권현용(2015)은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의 진로목표설정을 높일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정아·정운태(2015)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이 도시와 농촌 지역 중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의 각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오정아·남부현(2014)는 충청지역의 광역시와 군소도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요인(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들이 관계적 요인(부모, 교사, 친구)과 학교적응요인(학교생활, 수업, 환경)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학교 내 진로교육 강화,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교육연수를 통한 적극적인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성심·최승희(2011)은 생태체계 관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교 부적응 중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면서 학교생활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 즉,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고 이를 극대화하여(Gallwey, 2000),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줌으로써(Tice, 1997)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주변 관계와의 장애 없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타인의 견해를 수용하여 이를 학교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진로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관한 목표를 세우게 되고 이를 통해 진로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학교에 대한 적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진로코칭프로그램은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진로코칭프로그램은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들에게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진로코칭 프로그램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탁진국이 개발한 진로코칭프로그램(2017) 과정을 기반으로 “커리어 넷”에서 제공하는 “아로 플러스” 진로탐색 프로그램중 집단상담 형식의 활동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 코칭의 형태로 변형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또래집단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그룹코칭형식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긍정심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둔, 한국가이드스에서 제공하는 SAI 강점검사도 프로그램 과정 중에 투입시켰다.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보자면, 1회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시키기 위해 ppt자료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의 이해이며 그에 맞는 진로에 대해 탐색하기 위한 진로, 직업의 정

보제공과 이해가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틀임을 설명하고 다음 회기에 필요한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특성상 자발적 과제 수행의 어려움이 있기에 검사는 서면으로 실시하였다(커리어 넷에서 서비스 제공). 2회기에서는 전 회기에 실시했던 진로적성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그룹코칭 프로그램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를 실시한 후 그에 맞는 직업을 탐색(커리어 넷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요구 능력’표 활용)하고 직업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의 목적은 또래집단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회기 종료 전 직업흥미검사를 서면으로 실시하였다. 3회기에서는 2회기에 실시했던 직업흥미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행계획 짜기” 그룹코칭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2회기에서 작성했던 직업 리스트 중 개인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추출한 후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직업흥미검사는 6가지 유형으로 개인의 직업흥미를 분류한 홀랜드의 육각형이 그 근거로 개인의 직업흥미 유형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여행계획을 짜도록 코칭함으로써 “여행계획 짜기”의 목적인 서로의 유사함과 다름을 인정하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대인관계의 이해와 향상을 통해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함이다. 회기 종료 전 직업가치관검사를 서면으로 실시하였다. 4회기에서는 3회기에 실시했던 직업가치관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치관 카드 줄이기’ 그룹코칭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3회기에서 작성했던 리스트 중 개인의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추출한 후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가치관 카드 줄이기’의 목적은 타협의 개념을 이해하고 직업 선택 시 직업가치관이 어

표 1. 프로그램 내용

회기	목표	상세 활동 내용	프로그램 의의
1	관계형성	- 관계형성 - 프로그램안내 - 진로적성검사 실시	프로그램의 시작단계로 진로코칭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한다.
2	적성을 통한 자기이해와 직업탐색	-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 그룹코칭 활동. - 적성에 적합 직업군 도출 - 흥미검사 실시	검사를 통해 나온 나의 적성과 또래집단의 눈에 비친 나의 적성을 알아보고 이에 적합한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3	흥미를 통한 자기이해와 직업탐색	- ‘여행계획짜기’ 그룹코칭활동 - 전 회기 직업군에서 흥미에 적합한 직업군 도출 - 가치관 검사 실시	나의 흥미와 또래집단의 흥미를 이해하고 적성·흥미에 적합한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4	가치관을 통한 자기의 이해와 직업탐색	- ‘가치관 카드 줄이기’ 그룹코칭 활동 - 전 회기의 직업군에서 가치관에 적합한 직업군 도출 - 강점검사 실시	검사를 통해 나온 가치관과 활동을 통해 나온 가치관에 적합한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5	강점을 통한 자기의 이해와 직업탐색	- 강점과 관련하여 ‘나의 강점에게 기회를’ 그룹코칭활동을 통해 경험, 지지해주는 사람, 실패경험 등에 대해 나누기 - 전 회기의 직업군에서 강점에 적합한 직업군 도출	강점과 관련하여 경험을 나누어 보며 서로를 이해하며 적합한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6	자기의 이해와 직업탐색을 통한 미래설계 및 행동계획 수립	- ‘관심직업정리하기’ 활동 - 가까운 미래에 대한 행동계획수립	전반적인 자기의 이해를 통해 도출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미래를 상상해보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면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회기 종료 전 강점검사 SAI를 실시하였다. 5회기에서는 4회기에 실시했던 강점검사를 바탕으로 한 ‘나의 강점에게 기회를’ 그룹코칭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4회기에서 작성했던 리스트 중 개인의 강점에 맞는 직업을 추출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나의 강점에게 기회를’의 목적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강

점을 이해, 더욱 강화시키는 데 있다. 6회기에서는 5회기까지 추출하여 정리한 직업 리스트 1-3가지를 가지고 개인의 비전 수립과 가까운 미래에 대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J구에 소재한 S중학교에 재학 중인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선정기준은 부모의 별거, 이혼, 맞벌이 등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 출석일수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로 교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학생들 중 무선으로 16명을 선정하였다. 그 16명을 대상으로 하여 8명 실험집단(남녀 각 4명), 8명 통제집단(남녀 각 4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교사의 임의적 판단과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은 총 6회기의 진로코칭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통제집단은 그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절차

2016년 여름 방학기간동안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험집단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전검사는 진로코칭 프로그램 1회기에 실시하고, 6주에 걸쳐 주마다 1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프로그램 6회기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추후 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 실시하였다. 통제 집단은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1회기에 함께 모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6회기에 함께 모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동일한 시

기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에 통제집단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적용시키지 않았다.

측정도구

진로결정수준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탁진국, 이기학(2003)이 개발한 직업미결정요인 탐색 검사를 사용하였다. 직업미결정요인 검사는 전체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정보부족(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4문항), 필요성 인식 부족(4문항), 외적장애(4문항)의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제외한 네 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예로 직업정보부족은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자기명확성 부족은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필요성 인식 부족은 “현재로서는 직업 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외적 장애는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 어렵다.” 등의 항목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직업정보부족은 .93, 자기명확성부족은 .93, 필요성 인식부족은 .92, 외적장애는 .84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의 발달을 돕고,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지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이규미(200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도 검사는 전체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 유능감(5문항), 학업가치(3문항), 친구관계(5문항), 상호 협조성(5문항), 교사호감(6문항), 교사

친밀감(4문항), 질서/규칙준수(7문항), 학교생활 만족(3문항)의 8가지 요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가치(예)학교 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친구관계(예)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상호협조성(예)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하려고 노력한다), 질서/규칙준수(예)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학교생활만족(예)나는 우리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등 5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학교공부는 .84, 학교친구는 .96, 학교생활은 .94, 학교적응은 .96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중학생에게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추후(4주 후)검사를 실시하고 SPSS Window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인의 사전, 사후에 대한 시점과 실험, 통제의 집단 간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원 혼합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각 각의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봄으로써 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실험, 통제 집단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로코칭프로그램 적용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를 통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수준 중 직업정보부족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차이($t=-1.319$, $p>.05$), 필요성 인식 부족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차이($t=-1.063$, $p>.05$), 외적장애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 차이($t=0.828$, $p>.05$)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기명확성부족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 차이($t=-3.13$, $p<.05$)는 유의미하여 이 변수에 한해서는 두 집단의 동질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 중 학업가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 차이($t=-1.178$, $p>.05$), 친구관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 차이($t=-.858$, $p>.05$), 상호협조성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 차이($t=-.691$, $p>.05$), 질서/규칙준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 차이($t=-1.004$, $p>.05$), 학교생활만족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 차이($t=-1.457$, $p>.05$)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나타낸 표는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종속변인별 사전, 사후, 추후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변수	기술통계	실험 집단(N=8)			통제 집단(N=8)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진로결정 수준	직업정보부족	평균	2.63 ^{ab}	1.65 ^a	1.6 ^b	3.08	3.48	3.44
		표준편차	0.79	0.68	0.73	0.59	0.7	0.51
	자기명확성부족	평균	2.38	1.53	1.78	3.59	3.47	3.81
		표준편차	0.63	0.74	0.77	0.91	1.03	0.89
	필요성인식부족	평균	1.88	1.31	1.72	2.5	2.47	3.03
		표준편차	0.73	0.44	0.67	1.49	1.29	1.06
외적장애	평균	2.44 ^{ab}	1.31 ^a	11.84 ^b	2.13	2.38	2.66	
	표준편차	0.4	0.32	0.82	0.99	0.79	0.93	
학교적응	학업가치	평균	3.5 ^a	4.06 ^b	4.25	3.94	3.81	4.25
		표준편차	0.71	0.56	0.71	0.78	0.92	0.71
	친구관계	평균	3.93	4.68	4.55	4.38	4.3	4.55
		표준편차	1.33	0.5	0.46	0.65	0.68	0.46
	상호협조성	평균	3.78	4.48	4.5	4.13	4.2	4.5
		표준편차	1.29	0.47	0.76	0.61	0.6	0.76
	질서/규칙준수	평균	3.84	4.55	4.34	4.27	4.34	4.36
		표준편차	1	0.5	0.67	0.68	0.58	0.68
	학교생활만족	평균	3.63 ^a	4.5 ^a	4.33	4.21	4.33	4.29
		표준편차	0.6	0.47	0.89	0.96	0.64	0.88

주 효과 및 상호작용 분석

가설 검증을 위하여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적응의 사전, 사후에 대한 시점과 실험, 통제의 집단 간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내 요인과 집단 간 요인을 함께 분석 가능한 2원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 학교적응 각각에 대하여 사전, 사후의 시점과 실험, 통제집단 간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실험 및 통

제집단 간에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부족($F=50.225, p<.001$), 자기명확성부족($F=51.084, p<.001$), 필요성인식부족($F=12.319, p<.001$), 외적장애($F=5.745,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전과 사후 시점간에는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측정 시점과 집단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진로결정수준 중 직업정보부족($F=5.581, p<.01$)과 외적장애($F=3.787, p<.05$)에서 유의하였다.

표 3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온 직업정보부족과 외적장애에 관련한 그래프를

표 3. 종속변인 각각에 대한 주 효과, 상호작용과 분석 결과

구분	척도	변인	제 III 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집단	진로결정	직업정보부족	22.688	1	22.688	50.225	.000***		
		자기명확성부족	35.88	1	35.88	51.084	.000***		
		필요성인식부족	12.762	1	12.762	12.319	.000***		
		외적장애	3.255	1	3.255	5.745	.021***		
	학교적응	학업가치	0.047	1	0.047	0.086	0.771		
		친구관계	0.007	1	0.007	0.013	0.908		
		상호협조성	0.007	1	0.007	0.012	0.913		
		질서/규칙준수	0.072	1	0.072	0.146	0.704		
		학교생활만족	0.187	1	0.187	0.323	0.573		
		진로결정	직업정보부족	1.056	2	0.528	1.168	0.321	
시점	진로결정	자기명확성부족	1.909	2	0.954	1.359	0.268		
		필요성인식부족	1.909	2	0.954	0.921	0.406		
		외적장애	1.906	2	0.953	1.682	0.198		
		학업가치	2.281	2	1.141	2.091	0.136		
	학교적응	친구관계	1.482	2	0.741	1.333	0.275		
		상호협조성	2.555	2	1.277	2.037	0.143		
		질서/규칙준수	1.338	2	0.669	1.362	0.267		
		학교생활만족	2.227	2	1.113	1.916	0.16		
		집단 *시점	진로결정	직업정보부족	5.042	2	2.521	5.581	.007**
				자기명확성부족	1.581	2	0.79	1.125	0.334
필요성인식부족	1.039			2	0.52	0.502	0.609		
외적장애	4.292			2	2.146	3.787	.031*		
학교적응	학업가치		0.969	2	0.484	0.888	0.419		
	친구관계		1.365	2	0.683	1.228	0.303		
학교적응	상호협조성	0.785	2	0.393	0.626	0.54			
	질서/규칙준수	0.848	2	0.424	0.863	0.429			
	학교생활만족	1.292	2	0.646	1.112	0.33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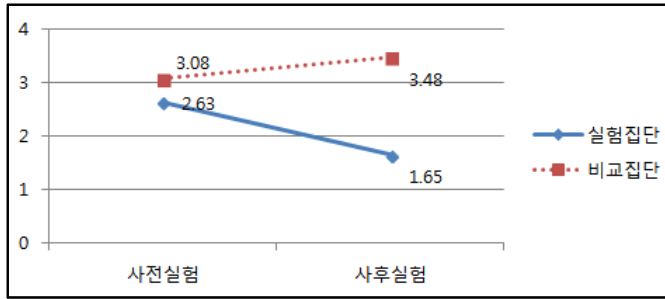


그림 1. 직업정보부족의 집단 간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추세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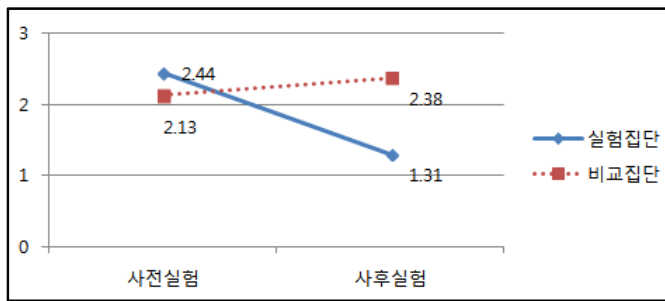


그림 2. 외적장애의 집단 간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추세 그래프

그러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과 2에서 보듯이 통제 집단의 직업정보부족 평균 점수는 사전, 사후에 변화가 미미하나 실험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 검사의 뚜렷한 감소가 보이고 있어 측정시점과 집단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외적장애의 평균 점수 또한 비교집단은 사전, 사후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실험 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 검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측정시점과 집단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잠재

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진로코칭프로그램은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검증결과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직업정보부족과 외적장애 요인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진로코칭프로그램은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 강점에 맞는 진로·직업의 탐색의 과정을 통해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직업정보부족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명확성 부족과 필요성 인식부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꾸준한 감소가 있었다.

이는 그룹코칭을 통해 학교적응력 향상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개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므로 유추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통한 자기 이해과정이 좀 더 효과성 있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대안 탐색과 진로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하지만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설 2. '진로코칭프로그램은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프로그램이 학교적응 향상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적응 중 학업가치에서는 사전-사후 검사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p < .05$) 나타났고, 학업가치,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질서/규칙 준수에서는 모든 두 시점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생활만족에서는 사전-사후간($p < .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설 2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유추해보면 집단 선별 시 학교 내에서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 대상이기는 하나 사전에 이미 집단 내 학생들간 친밀도가 높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임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과 사후집단 간의 유의미한 학업가치 결과를 토대로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해당 학생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내적긴장감이나 지지적인 대인관계 형성능력

결여의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유성경 등, 2002) 직접적인 학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적극적 지지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학교가 주체가 되는 코칭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업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들(김재근, 2009; 박상철, 2013; 조성심, 2011)과도 일치하며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적응 중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질서/규칙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의 진로 인식 고양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에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의 첨가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또한, 진로코칭프로그램의 종료 후에도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였다. 사전-사후-추후검사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진로미결정수준은 차츰 낮아지거나 추후 검사 때에도 그 값이 유지되는 등의 효과의 지속성을 보였고 학교적응 또한 평균값이 사전-사후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사후-추후에도 그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그룹코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즉, 집단 내에서의 역동성으로 인해 구성원 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진로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직업정보부족, 외적장애에서 유의미한 효과성을 보여 주었으며 학업가치와 학교생활만족에

서는 사전·사후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칭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에서도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적응 향상에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중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김영희, 2010),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부적응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김은정, 2005), 진로집단상담이 학교부적응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박상철, 2013) 등에서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학교적응도와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진로관련 개인변인(진로흥미, 적성, 가치)을 고려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변인인 흥미, 적성, 가치관, 강점을 통합한 코칭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그룹이나 집단에서 간과하기 쉬운 개인변인을 여러 가지 진로심리검사를 통해 알아가는 과정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코칭 프로세스는 기본적인 자기의 이해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직업을 탐색하고 이를 진로결정수준 향상으로 연결시켜주면서 학교적응도 향상시켜주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탁진국이 개발한 진로코칭프로그램(탁진국, 2017)을 기반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진로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커리어 넷”에서 제공하

는 진로심리검사(적성, 흥미, 가치관)를 바탕으로 “아로 플러스”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여기에 학교적응 향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각 회기별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그룹코칭프로그램을 추가시켰다. 이때 추가한 그룹코칭프로그램은 학교현장에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이 있음을 검증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그 효과성이 일부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게 강점기반의 코칭을 적용한 자기의 이해를 통해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켜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변인을 통합, 진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와 연결, 진로 결정,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돕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에게 진로와 관련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인적, 이론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도의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에게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아로 플러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로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교적응력 향상에 효과를 꾀하고자 함에 있어 그 의의가 있다. 각 회기별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타협, 배려를 길러주어 학교적응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그룹코칭 형식의 프로그램이 투입되었다. 앞의 통계자료에서도

보듯이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학교 부적응인 만큼 이를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병리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보다는 긍정정서를 향상시켜주어 해결할 수 있는 코칭프로그램의 요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주입식 수업의 형태가 아닌 활동위주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J구에 위치한 S중학교에서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 중 학생부장 교사의 추천을 받아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로 나온 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주에 1회기씩 총 6회기에 진행되어 효과의 지속성을 오래 유지하기에는 짧은 과정으로 회기가 길게 진행되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서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선발된 근거도 교사와 학생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집단이 무선으로 표집 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효과성 검증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개개인의 다른 요인이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증은 배제되었다. 이에 연구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연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진로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변인들에 대해 이를 보완하여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에게 적합한 진로코칭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영, 양은주, 방나미 (2011).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개발. 열린교육 연구, 19(1), 89-125.
- 김경숙, 남현우 (2014). 탈비행 청소년의 비행정체성에 대한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의 변인 비교. 한국청소년 연구, 25(2), 209-236.
- 김기년, 탁진국 (2013). 청소년 강점척도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32(4), 803-828.
- 김귀화, 윤요운 (2015). 학교부적응 고등학생을 위한 긍정심리중심 집단 미술치료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3), 105-126.
- 김나래, 김대원, 이기학 (2013). 자기개념 명확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자기성장 주도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3(1), 424-424.
- 김대선, 강지연, 정재희, 김기년, 탁진국 (2016). 청소년 진로의사결정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학교, 13(1), 1-30.
- 김민선, 서영석 (2010). 자기효능감·개인배경·맥락적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

- 구. 한국청소년연구, 21(2), 67-96.
- 김보람, 김봉환 (2015). 진로탐색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8(2), 1-22.
- 김보현, 조경덕 (2013). 진로성숙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 4(2), 33-52.
- 김연순, 엄인숙 (2013). 대구지역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복지행정논총, 23(1), 73-91.
- 김영희 (2010).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중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나 (200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학위 논문.
- 김유진 (2015).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실 (2015).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효과. 교원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31(3), 167-191.
- 김은정 (2005).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부적응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 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 (2013).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97-517.
- 김정희 (2012). 청소년 일대일 진로코칭프로그램이 불안 감소와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주, 권현용 (2015).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 18(1), 67-82.
- 김하나, 김혜연 (2015).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제주도 지역아동센터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웰니스학회, 10(1), 159-169.
- 김형남 (2012). 자기이해 중심 진로탐색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향, 천미숙, 이현림 (2008). 진로탐색 집단 상담이 진로미결정 중학생의 진로자아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진로교육학회, 21(3), 193-216.
- 박원주, 이기학 (2008). 탄력성에 따른 성격 유형별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연구. 한국 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75-695.
- 박정현, 이미숙 (2014).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32(3), 45-63.
- 서영석 (2015).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진로 및 학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15, 111-111.
- 서영석, 이은정, 김재훈, 박성화, 최유리, 최정윤 (2015). 학업중단위기청소년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교, 12(3), 407-436.
- 석민경, 조한익 (2016). 청소년의 불안/우울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사회적지지 및 갈등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1), 1-23.
- 손병덕, 김민선 (2017). 잠재적 학교 밖(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모형개

- 발. 청소년학 연구, 35(1), 79-102.
- 손해경, 이해정, 김미영 (2014).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인지진로이론 에 근거하여. 한국 아동간호학회, 20(4), 314-321.
- 오정아, 남부현 (2014). 관계적 및 학교적응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1(2), 185-209.
- 오정아, 정윤태 (2015).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도·농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연구, 22(9), 49-77.
- 우병아 (2006).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학업성취도에 따른 비교-. 부경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윤진선 (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 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서, 2006.11, 1-513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 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상희, 서유란 (2013). 한국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성차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13(1), 278-278.
- 이정애, 최용용 (2008). 진로상담: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9(1), 129-146.
- 이태영, 김원희, 이동훈 (2011). 계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행동 청소년의 공격성, 정서표현, ADHD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1(2), 71-88.
- 정연순, 이민경 (2008). 교사들이 지각한 잠재적 학업중단의 유형과 특성. 한국교육, 35(1), 79-102.
- 장정임 (2009).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백록논총, 11(2), 141-163.
- 정민선 외 (2011).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지속 요인에 관한 질적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9(1), 87-105.
- 조성심, 최승희 (2011). 학교 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생태체계 관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학교사회복지, 20, 23-54.
- 조지연, 탁진국 (2016). 궁정심리기반 강점 코칭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연구, 23(1), 279-304.
- 진기영 (2009).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 요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임 외 (2013). 코칭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일반, 32(2), 429-454.
- 최종혁, 박수정, 신빛나 (2011).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행동 강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초구 S중 3학년 K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연구, 18(1), 135-164.

- 최지원, 박영숙 (2011). 학교부적응청소년의 MMPI-A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수준. *한국 청소년학회*, 18(9), 265-284.
- 탁진국 (1996). 경력미결정과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산업 및 조직*, 9(2), 81-94.
- 탁진국 (2017). 흥미, 적성, 성격 및 직업가치를 통합한 커리어코칭. *한국심리학회: 코칭*, 1(1), 73-97.
- 탁진국, 강경규 (2003). 직업미결정요인탐색검사의 타당도. *연차학술발표대회*, 3(1), 351-352.
- 탁진국, 임그린, 정재희 (2014). 행복증진을 위한 긍정심리기반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 33(1), 139-166.
- 하민정 (2015).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 접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29-60.
- 허정철 (2009).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9(8), 433-441.
- 호로, 사라 아일랜드, 줄피 후세인 (2010). 코칭심리.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emers, M. M., Hu, L.,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55-64.
- Dean Manders (1975). *Labelling Theory and Social Reality: a Marxist Critique*. *Critical Sociology*, 6(1).
- Faruky, Uddin & Hossain (2012). Students' Satisfaction: A Study among Private University Students of Bangladesh. *World Journal of Social Sciences*, 2(4), 138-149.
- Gallwey, T. (2000). *The inner game of work*. Texene: Random House.
- Garrison (1987). Researching drop-out in distance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8(1), 95-101.
- Kendall, P. C. & Braswell, L. (1993).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Orlando: Academic Press.
- Kendall, P. C. & Zupan, B. A. (1981). Individual versus group application of cognitive-behavioral self-control procedures with children. *Behavior Therapy*, 12, 344-359.
- Michael, L. S. (2009). *College Student Inventory TM -Form B*. Noel-Levitz.
- Tim Theeboom (2013). Does coaching work?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coaching on individual level outcomes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1), 1-18.
- Tice, L. (1997). *Personal Coaching for Results*.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TN.
- Vitaro, F., Larocque, D., Janosz et al., M., & Tremblay, R. E. (2001). Negative social experiences and dropping out of school. *Educational Psychology*, 21(4), 401-415.
- Walton, G. M., & Cohen, G. L. (2011). A brief social-belonging intervention improves academic and health outcomes of minority students. *Science*, 331(6023), 1447-1451.

1차 원고접수 : 2017. 11. 17

2차 원고접수 : 2017. 12. 04

최종게재결정 : 2017. 12. 15

The Effect of Career Coaching Program on Career Indecision Level and School Adaptation of Potential School Dropout Crisis Adolescents

Lee, Younhee

Jinkook Tak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areer coaching program for potential school dropout crisis adolescents on their school adjustments and levels of career indecision. Participants were 16 potential school dropout crisis adolescents, 8 for the experiment group and 8 for the control group, who are the 2nd graders at S middle school in Seoul. The career coaching program was conducted on six sessions for 2 hours at one session. Data were collected across three times(pre, post, follow-up). The follow-up test was administered 4 weeks after the post-t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s,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indecision level scales were administe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ime interval and groups only for the lack of career information and external barrier factors among the career indecision variables.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other variables, however, there were improvements on career indecision as well as school adjustment after the coaching program.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otential school dropout adolescents, career coaching program, school adjustment, career indecision